

고령의 저위험군 초산모에서 산모 연령이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

김태은, 이순표, 박종민, 황병철, 김석영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산부인과학교실

Objectives (목적)

고령 초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연령이 임신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Methods (연구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임신 21주 이후 분만한 산모 중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이외에 산과적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없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가 없는 저위험군 산모만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들 중 35세 이상인 산모 235명을 연구군으로 하였으며, 20세에서 34세까지의 산모 1571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임상적 특징 및 산과적 예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결과)

제태연령이나 출생체중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군에서 제왕절개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았으며 (60.4% vs 39.4%, $p=0.000$), 제왕절개의 적응증 중 기왕 자궁수술력이 있었던 경우, 전치태반인 경우의 빈도가 연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3.0% vs 0.2%, $p=0.000$, 9.4% vs 5.2%, $p=0.011$). 신생아 합병증에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산전합병증은 전치태반, 자궁근종의 빈도가 연구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6.0% vs 2.8%, $p=0.010$, 4.7% vs 1.2%, $p=0.000$), 산후합병증은 수술부위 감염의 빈도가 연구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1.7% vs 0.3%, $p=0.005$).

Conclusions (결론)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없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가 없는 저위험군 고령 초산모에서 전치태반의 빈도 및 제왕절개의 빈도는 유의하게 증가하나 신생아 합병증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전 및 산후 합병증 중 전치태반, 자궁근종, 수술부위 감염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산후출혈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고령의 초산모에서 단지 산모의 연령이 고령인 것이 산과적으로 고위험 요소는 아니며, 모든 고령 산모를 고위험 산모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